

“그림으로 관객과 소통...떨립니다”

그림 15점으로 첫 개인전 갖는 탤런트 강석우

탤런트 강석우가 그림으로 관객을 만난다.



작품으로 관객과 소통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엔 그 의미가 남다르다. 밥을 새워가며 그린 그림 15점으로 첫 개인전을 여는 것. 전시를 하루 앞둔 강석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역력하다.

“이름만 개인전이지 한때 여태껏 했던 것 중에 속으로 제일 힘든데요, 이 정도면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사람들이 안 올 것 같다는 걱정도 들고요. 그림 그리는 아내 옆에 둘러다니는 캔버스가 있어서 한번 그려본 게 2004년이었고 그 뒤론 매일 밤 그렸어요.”

저녁 6시만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산책하고 밤 9시가 되면 그림을 그렸다. 새벽 2~3시까지 그림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밤에 꿈꾼 것도 그렸다.

지난해에는 아내 나연신 씨와 2인전을 열었고 올해 한국 현대미술제와 한국미술의 화연에도 출품했다. 이제는 개인전. “아내와는 그림에 대해서는 일인반구도 안해요. 아내는 낮에 그리고 저는 밤에 그리거든요. 그래도 아내가 가끔 제 그림을 보고 좋다고 하면 ‘해해’ 하죠.”

25년 지기인 송승환이 “재주 많은 친구”로 치켜세울 만큼 강석우는 다방면에서 열심이다. 일년에 색소폰을 들고 무대에 서는 것도 여러 차례고 매일 아침엔 친근한 입담으로 청취자를 만난다.

강석우의 개인전은 2일부터 8일까지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린다.

기술도 名匠...봉사도 名匠

<명장>

화순군 북면 방리 양지마을 주민들은 지난날 29일 모처럼 마을 보수 공사를 했다. 낡은 전기 배선을 새로 교체하고, 움직일 때마다 들기 싫은 쇠소리를 내는 문도 고쳤다.

그러나 비용 부담은 없었다.

대중 교통도 부실해 승용차가 없으면 쉽게 면에도 나가지 못하는 마을. 북면과 화순군을 거쳐 광주로 가는 군내 버스가 오전 7시, 오후 6시 딱 두 번 다니는 곳. 기술자가 찾아 오기도 쉽지 않아 참고 견디는 데 익숙한 주민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하루 온종일 땀을 흘리며 마을 리모델링을 한 인부들은 광주 기능선수회(회장 문병주) 회원들.

지난 1966년부터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선수 선발을 위해 시작된 전국기능올림픽대회와 지역예선에서 입상한 80여명의 기능인들이다. 마을을 둘러본 기술자들은 시골 오지 마을의 참담함에 놀랐다. 부랴부랴 가져온 공구를 꺼내든 기술자들이 제일 먼저 손을 댄 것이 전선.

회원들은 “아직 불이 나지 않은 게 신기할 뿐이네요.” 라고 입을 모았다. 이 마을 집들은 10여년 전에 전압이 220V로



광주지역 기능대회 입상 기술자들의 모임인 ‘광주 기능회’ 회원 30여명이 29일 화순군 북면 방리 양지마을에서 주민들에게 집수리 등 기능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위탁기자 jrwi@kwangju.co.kr

올랐지만 전선은 여전히 과거의 110V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220V 전용 전선은 합선됐을 경우 220V 전압을 견뎌 화재 우려가 적다.

하지만 전압을 220V로 올린 뒤 110V 전선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면 너무 많은 바람을 넣으면 풍선이 터지듯 합선 될 경우 전압

을 견디지 못하고 불이 날 우려가 크다.

배종수(43)씨는 “여섯집 정도가 흔히 ‘두 가닥 전선’으로 알려진 110V 전용 전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고, 다른 20여 집에서도 헛간·외양간·가로등 등에서 110V 전선이 남아 있었다”며 “시골 마을 헛간과 외양간에서 전기 합선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것도 110V 전선을 여진

광주 ‘기능 선수회’ 화순 오지마을 찾아
전기배선 교체·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히 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숙희(50·94년 전국대회 우승) 미용 기능장도 인기였다. 미장원이 없어 제때 머리 손질을 못했던 탓이다. 마을 정자인 ‘양지정’은 이 씨가 미용 도구를 내려놓자 파마를 하고 머리 카락을 손질하려는 주민 30여명이 몰려들며 북적였다.

주민 정덕순(67)씨 “파마 한 번 하려면 면에 갔다가 집에 오는 버스가 출발하는 저녁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나지 않는다. 명절이나 친지 결혼식이나 한 번 씩 머리를 한다”고 말했다.

72세인 김종훈씨가 “젊은 남자” 축에 걸 정도로 젊은 사람이 없어 마을회관 주변이 어두워도 가로등 하나 설치하지 못했고, 대문과 철제 다리가 어긋나 배격거리도 손볼 수 없었다.

광주 기능선수회 문병주(55)회장은 “간단하게 응급한 해줘도 덜컥거리는 대문을 고칠 수 있는데 기술자가 없어 아예 문을 떼어놓고 살더라”며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실외에 빠진 농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집 수리 등 농촌 마을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신영복 작가

‘황진이’ 포스터 타이틀 로고 선물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으로 유명한 신영복 작가가 송혜교 주연 영화 ‘황진이’의 포스터 타이틀 로고를 썼다.



신영복 작가는 영화 ‘황진이’ 제작 소식을 듣고 타이틀 글씨를 선물하겠다고 뜻을 전해왔다고 한다.

제작사 측은 “신 작가가 북한 작가 홍석중 씨의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먼저 타이틀을 써주겠다고 제안했으며 여러 장의 서체로 보내왔다”며 “그 중 가장 힘 있고 대중적인 서체를 고른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공개한 ‘황진이’ 포스터는 “나는, 세상이, 우습다”라는 카피와 함께 황진이(송혜교), 황진이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시대에 맞선 몸이(유지태), 위선의 시대를 대변하는 희열(류승룡)이 등장하는 것과 황진이의 도발적 눈빛과 몸이의 애뜻한 시선이 교차하는 장면이 담긴 두 종류로 구성됐다.

중 배우 천하오 ‘2008 함평나비·곤충엑스포’ 중화권 홍보대사

조직위 3일 위촉장 전달

중국 영화배우 천하오(陳好·24)씨가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중화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재)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의 해외 관광객 유치와 위촉하고 3일 열리는 나비축제 개막식 때 위촉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천씨는 위촉 행사에 앞서 관광객 등을 상대로 랜 사인회를 개최하고 제9회 나비축제 현장과 함평 에코 파크(ECO Park)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

볼 예정이다.

이번 천씨의 함평 방문에는 중국 국안문화 전매투자유한공사 연강 회장 등 관계자와 중국 CCTV, SINA 닷컴 등 중국 기사가 대거 동행 취재에 나선다.

천씨는 데뷔작인 영화 ‘그 산 그 사람 그 개’(감독 귀지엔지)로 몬트리올 영화제 관객상과 인도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등을 수상한 중국의 인기 영화배우다. 또 지난 2월 제1회 중국영화제 홍보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바 있어 동아시아권 홍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송기훈 강진군청 민원과장 국무총리 표창 받아

송기훈 강진군청 열린민원과 과장이 지난해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실시한 2006년도 개별 공시지가 업무추진 실적 평가에서 ‘부동산가격공시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일 국무총



리 표창을 받는 다. 송 과장은 지난 2004년 12월부터 열린민원 과장으로 재직해 오면서 친절

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왔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인사

◆대법원 〈신임 법관 임명〉

◇광주지법 ▲김경배 ▲김연경 ▲김영기 ▲김영아 ▲김용찬 ▲김유진 ▲김현정 ▲노미정 ▲노연주 ▲서영기 ▲황운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정수경 ▲진재경
◇전주지법 ▲김이경 ▲김정철 ▲박세진 ▲윤남현 ▲하선화 ▲황진희
◇전주지법 군산지원 ▲문현정 ▲한종환
◇제주지법 ▲김현곤 ▲차진석

◆조선대

◇승진 ▲총무처장 한상복(참여) ▲예산팀장 김순의(부참여) ▲국제협력팀장 나성덕(부참여) ▲학적팀장 최병택(부참여) ▲직원인사팀장 조광현(참사) ▲체육대학 교학팀장 문교식(참사) ▲구내팀장 박복만(참사) ▲입학정책팀장 이선행(참사) ▲기획팀장 박용열(참사) ▲국내협력팀장 장광미(부참사) ▲자산관리팀 최문식(부참사) ▲신문방송사 김일동(부참사) ▲예산팀 이기자(부참사) ▲산학재무팀

김종암(부참사) ▲학적팀 김인자(부참사) ▲산학기획팀 김선영(부참사) ▲교육대학팀 김양희(주사) ▲국제협력팀 김현경(주사) ▲교무연구팀 김경희(주사) ▲재무팀 정덕심(주사) ▲건설1팀장 김상근(기술부참사) ▲정보운영팀장 조규선(기술참사) ▲전자정보공과대학 김관수(기술부참사) ▲시설관리팀 이영식(기술부참사) ▲정보운영팀 김창훈(기술주사) ▲학술정보지원팀 박경희(기술주사) ▲학생지원팀 송운문(기능6급) ▲학적팀 이연자(기능6급) ▲총무팀 주준식(기능6급) ▲정보지원팀 임기준(기능6급) ▲평생교육지원팀 신기환(기능7급) ▲수업팀 장병복(기능7급) ▲공과대학 최정석(기능7급) ▲아학교육지원팀 윤일(기능7급) ▲시설관리팀 김영배(기능7급) ▲체육대학 조경수(기능7급) ▲총무팀 김용수(기능7급) ▲시설관리팀 최관근(기능7급) ▲총무팀 이안범(기능7급)

◇전보 ▲체육대학 강성이 ▲수업팀 이희숙

◇특별승진 ▲직원인사팀 이경섭(참여) ▲총무팀 이덕주(기능6급) ◇신규임용 ▲미술관 서지혜

관절염 치료 특허기술 해외 판매

최 후 군 조선대 약학대학장



최후군(52·사진) 조선대 약학대학장이 자신이 직접 개발한 특허기술을 해외 제약업체에 이전 관했다.

1일 조선대에 따르면 최 학장이 류머티스관절염·퇴행성관절염 등의 증상을 치료하는 ‘멜록시카움(Meloxicam) 경피흡수제 조성물 및 제조방법’을 개발, 지난해 특허출원한 데 이어 최근 대학기술이전센터를 통해 홍콩 제약회사 ‘골드 퍼시픽 바이오’에 이전

관했다. 선급기술료는 2만 달러이며 경상기술료는 상품판매 시점에 4만 달러, 상품판매 시점부터 10년간 총매출액의 2%이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가운데 하나인 멜록시카움은 류머티스관절염, 골관절염, 근골격 장애의 급성통증을 널리 쓰이며, 속쓰림 등 위장장애를 줄이는 효과도 지니고 있다. 특히 경구

투여시 하루 7.5~15mg의 적은 용량으로도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와 동등한 효과를 나타내 20mg을 필요로 하는 ‘피록시카움’에 비해 우수한 물리·화학·약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최 학장은 “멜록시카움 경피흡수제는 현재 시판 중인 ‘피록시카움 경피흡수제’에 비해 투과율이 높아 약물흡수가 잘 된다”며 “기술 상용화가 이뤄질 경우 의외소독은 물론, 국내 기술력을 해외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태중기자 hwangtae@

남양건설 창립 49주년 기념행사



남양건설은 1일 광주 북구 충충동 시옥에서 마칭럴 회장과 임직원, 협력업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9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고재빈(광주일보 장성 주재기자)씨 차남 의석군 정병태씨 차녀 현아양=5일(토) 낮 12시10분 상무리초컨벤션웨딩홀 2층 자스민홀.
▲김윤중(전 연암도포면장)씨 장남 선홍군 이종근씨 차녀 수진양=5일(토) 오후 1시40분 충주시 이화에식당 2층.
▲오재일(장흥군 재향군인회장)씨 차남 영준(육군대위)군 김성근씨 차녀 은영(육군중위)양=5일(토) 오후 2시30분 상무리초컨벤션웨딩홀 2층.
▲최병철씨 차남 승재군 임광택(진흥건설 대표)씨 차녀 주영양=4일(금) 오후 5시30분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 1층 그랜드볼룸.
▲장중대(광주시청 회계과)씨 차남 석원군 정정대씨 차녀 경옥양=5

일(토) 낮 12시 광주교직원공제회 관 예식홀.

알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나 가족들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낮 12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점심 제공)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접인 대상으로 흡연의 피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

연보조제 및 상담.문의 363-2240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지원 및 심리 치료 등 One Stop 서비스. 232-1375, http://forchild.or.kr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227-8877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652-1366, 434-1366 www.gene-korea.com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9191, 광주 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리 실시=직접인 대상으로 흡연의 피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한뿌리회(삼의의장 김용진) 창립 19주년 기념행사=오후 7시 산수동 사무실. 017-628-7440

동창·동문회

▲담양 창평목초교 29회 동창회 모임=2일(수) 오후 7시 보건대 안경점. 010-6688-8983

▲전남대 행정대학원 동창회(회장 임우진) 정기 이사회=2일(수) 오후 7시 금수장 아리랑하우스 연회장. 011-604-7709

▲재광 목포공교 동문회(회장 정기욱) 모임=3일(목) 오후 7시 상록회관.

▲광주시대부중 제 4회 동창회(회장 전성수) 모임=4일(금) 오후 6시 맞팔점. 226-1410
▲송원고 총동문회 월례회=7일(월) 오후 7시 녹차막인 오리. 011-212-2900

모임

▲해군전우연합회 창단준비위 참가자 모임=11일(금) 오후 7시 광주 히딩크 호텔. 464-5340.cafe.daum.net/gjknva

종친회

▲전주리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구례군분원(분원장 이동신) 정기 총회=4일(금) 오전 10시30분 구례 이화회관.

▲연양김씨 광주시 종친회(회장 김남전) 격월회의=4일(금) 오후 6시30분 병택회관.

모집

▲아동복지교사 광주지원센터, 아동복지교사 모집=고졸 이상 학습지도 가능자. 문의 262-2780, 3
▲광주향교 한문교실 수강생 모집=기초~중급 과정. 월·수·금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문의 672-7008

▲광주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무료 훈련생 모집=가사 도우미와 개호 복지사 교육 희망하는 주부 및 고령자. 문의 511-0011~3

▲Ms magic 회원 모집=각종 이벤트·축제·레크레이션 공연 등 마술회원 모집. 227-1991

▲Philo통기타 동호회=40세 이상 남녀, 매월 1회 정기발표회, 초보자도 가능 019-660-3388

부음

▲조양순씨 별세 송재검(고흥 동강중)·기호(대주건설 권택업 이사)·재현(담원건축사무소장)씨 모친상 이영선(자영업)·장재형(아주학원 이사장)·박준철(황도외과 원장)씨 빙모상=발인 2일(수) 오전 8

시30분 그린장례식장 9분향소. 250-4409

▲박양순씨 별세 문병학(무동회관 대표)·병해(서구보건소 의사)·병원(우리미래대표)씨 모친상 문병(동아병원장) 조모상 신이철(법무사)·김종호(광주은행 상무지점장)씨 빙모상=발인 2일(수) 오전 9시 천주교 광주 본성동 성당. 671-8001

▲윤용병씨 별세 오중(서광주농협 전무)·준환(광주지법)·복희·영란·현욱·선희씨 부친상 노영수(서울지방 철도청)·김영두(남광주농협 상무)·이정길(금호타이어(주))·김대중(서울지방경찰청)씨 빙부상=발인 2일(수) 금호장례식장 301호. 227-4000

▲이영선(자영업)·장재형(아주학원 이사장)·박준철(황도외과 원장)씨 빙모상=발인 2일(수) 오전 8

▲조양순씨 별세 송재검(고흥 동강중)·기호(대주건설 권택업 이사)·재현(담원건축사무소장)씨 모친상 이영선(자영업)·장재형(아주학원 이사장)·박준철(황도외과 원장)씨 빙모상=발인 2일(수) 오전 8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가족납골묘 특별분양
분양문의 (062) 521-1100